

# 잊히지 말아야 할 그 이름, 미얀마: 두 마리 '호랑이', 그리고 한국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교수

미얀마 군부연구로 국제관계학 박사를 취득하고, 동남아 정치발전과 국제관계 연구를 수행해 왔다.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역임했고, 현재 동 연구소 연구교수, 사이버한국외대에 출강한다.

# 잊히지 말아야 할 그 이름, 미얀마: 두 마리 ‘호랑이’, 그리고 한국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교수

쿠데타 이후 미얀마는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다. 미얀마 남부의 주요 도시인 양곤은 각종 범죄와 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도시가 되었고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려는 국민은 준비하며 부유층은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시작했다. 국민통합정부(NUG)는 하위에 무장단체인 시민방위군(PDF)을 창설하여 땃마도(tatmadaw)<sup>1</sup>와 대결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전례 없는 무장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땃마도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NUG는 정치와 행정 경험이 전무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결속하는 정치적 기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미얀마와 우호를 다져 온 국가로서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을 정립하는 차원에서도 꺼져가는 미얀마에 대한 관심을 살리고 지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

## 글을 열며: 미얀마 방문 소회(所懷)

**1** 원래 왕실 근위병을 일컫는 용어였으나 근대국가 들어 규모가 큰 국군의 의미로 확대되었다. 참고로 땃마도는 영국 식민시기 당시 일본의 도움을 받아 1941년 12월 31일 아웅산 장군이 주도하여 창설했고, 독립의 주체가 되었다.

지난 6월 말 ‘무려’ 3년 반 만에 미얀마를 다녀왔다. 미얀마와 함께 한 연구자로서 지난 3년 반은 현장을 보지 못했으니 연구를 해도 그 결과가 미덥지 않고, 무엇보다 미얀마의 산천초목, 친구, 단골 음식점, 무엇 하나 그림자 없었던 것이, 또 보고 싶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래서 필자에게 ‘무려’라는 수식어는 부족함이 없다. 공항 앞은 여느 때처럼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조금만 벗어나 중무장한 군인과 경찰이 지그재그로 쳐 놓은 바리케이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을 샅샅이 수색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최근 들어 양곤 시내에서도 총격이나 폭발사고가 잦아져 배치된 군인과 경찰의 수도 많아졌다고 한다. 수십 번 넘게 미얀마를 드나들었지만, 긴장감이 맴도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미얀마인들의 엑소더스(exodus)는 이제 보편적인 일이 되었다. 주변국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가기 위해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각 대사관 앞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도 비자 면접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새벽부터 장사진을 치다 보니 안전사고나 테러의 대상이 될까 매일 노심초사 중이라고 한다. 엄마가 해준 밥이 그림자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한국 내 미얀마인들의 일성이 기억났다.

장삼이사(張三李四)만이 미얀마를 떠나려는 행렬에서 있지 않은 듯했다. 특수를 누리던 고급 호텔은 쿠데타로 인해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소규모 호텔을 포함한 건물 매각 광고물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태국 부동산정보센터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9개월간 미얀마인의 태

## 2 독립이후 역대 국가지도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또는 공덕을 쌓기 위해 모두 불탑을 세웠는데, 왕조시대 불자왕(佛子王)의 행태를 답습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부수적 목적도 있다.

우 누(U Nu) 총리는 거바에(Kaba Aye) 불탑, 네윈(Ne Win)은 마하위자야(Mahawizaya) 불탑, 수도를 이전한 땀쉐(Than Shwe)는 외부(미국)의 침략을 무마하려는 의도에서 윗빠다땅띠(Uppathant) 불탑을 세웠다. 군부정권이 종식된 이후 지도자는 네빠도에 불탑과 불상을 세웠다. 떼잉쎄인(Thein Sein) 대통령은 부다 가야 불탑을 복제한 불탑과 마하따자란띠(Mahathakyanthi) 불상을 세워 인근 사원에 보시했고, 아웅산수찌(Aung San Suu Kyi)와 윈민(Win Myint) 대통령도 '영원한 평화'라는 의미인 타워라네인찬예 제디(Htawaranyeinchanye zedi)를 봉헌했다.

국 콘도 구매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배가 넘는 188채였고, 2022년 전체 콘도 구매 금액도 13억 4천 바(약 3,922만 달러)로 전체 구매량의 3.6%를 차지했다(Leah 2022.12.28; Phoonphongphiphat 2023.2.21). 2023년 1/4분기에 들어서도 이런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미얀마인은 1채 가격이 평균 650만 바(약 19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의 콘도를 구매했다(KaiBaanThai 2023.6.23). 양곤의 한 사업가는 이 현상을 두고 미얀마 부유층이 지지하거나 결탁해 온 기득권의 실패가 머지않았다고 예측했다.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될 정도로 미얀마에는 범죄가 거의 없었다. 시골 마을 어귀에는 생수와 요기할 과일이 상비되어 있고, 사원에서는 언제든지 결식(乞食)할 수 있다. 기본 욕구가 해결되니 풍족하지 않더라도 사람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는 적다. 아로바(alawba), 즉 욕심을 없애면 선업(善業)을 쌓을 수 있지만 남의 물건을 탐하려는 마음만으로도 아꾸도(akudo), 분명 악업(惡業)을 저지르는 불경한 행위이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지독한 생활고 앞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대낮에도 강력범죄가 빈번해졌고, 양곤 외곽으로 이주해 온 움막을 군부가 강제로 철거하면서 적지 않은 노숙자가 발생했다. 몇 군데 둘러 본 우범지대는 무장 경찰의 통제에 있었다. 군사평의회는 반체제 테러리스트 집단이 강력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지만 흥흥해진 민심을 수습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만약 성역(聖域)인 불교사원의 보시물 절도 소식이 들려온다면 민생 파탄은 당연하고 나아가 미얀마를 지탱해 온 가치와 규범도 붕괴할 것이다.

실로 미얀마 경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은행은 2021년 미얀마의 GDP 성장률을 국가 성립 이래 최저인 -17.9%로 발표했고 회복세도 타 아세안회원국보다 더디다. 변변한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어졌고 화폐 가치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어 노동의 대가는 합당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친 것은 사실이나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군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평의회에 더 큰 귀책이 있다. 민아웅흘라잉 군사령관은 전염병의 고통을 잊기 위해 불경을 외우라고 하던가, 에너지를 돌파하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라는 황당한 제안도 했다(The Irrawaddy 2022.12.17). 네빠도에는 필요 없는 지하철과 전기버스 도입 검토를 지시했으니 전시행정에는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다. 또한, 그는 미얀마가 5년 내 아세안 내 중위소득 국가, 10년 내 최고소득 국가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Khine Win 2021.9.30).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 와중에 그는 4천만 달러를 들여서 그를 위한 불상을 미얀마의 수도, 네빠도에 세웠다(Myanmar Now 2023.7.31).<sup>2</sup>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더 연장했다. 인플레이션을 무시한 채 2만짜리 신권도 발행했는데, 자신의 임기를 연장할 심산으로 점성술사의 의견을 받들어 새 화폐를 발행한 네윈(Ne Win)의 행적과 겹쳐진다.

필자와 20년 이상 친분을 쌓은 퇴역 관료를 만났다. 그는 영관급 장교에서 예편하여 고위 관료로 40년 가까이 봉직했고, 몇 년 전 사망한 군인 출신 고위 관료의 제자라는 사실을 평소에도 숨기지 않는 인물이다. 흔히 후견주의(clientelism)로 알려진 ‘스승-제자관계’는 미얀마 내 모든 집단의 작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핵심이다. 정치적 성향을 함구했던 그가 오랜 만에 만난 필자에게 건넨 인사말은 예상외였다. “미얀마인으로 행복하지 않고, 즐거운 일도 없다.” 전직 국회의원, 퇴역 관료, 사업가 등 그의 동료들도 군부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고 전언했고, 이제 그가 사회주의 교육을 강요받던 젊은 시절의 미얀마로 돌아갈까 두렵다고 한탄했다. 미얀마는 가난한 국가이므로 국민의 일차목표는 정치가 아닌 생계라고 했던 그의 태도가 달라진 것에 필자는 적지 않게 놀랐고, 쿠데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사회지도층까지 확산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현재 상황은 두 마리 호랑이가 서로 꼬리를 묶고 대립하는 것과 같으므로 미국, 중국 등 강대국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처방까지 제시했다.

## 두 마리 호랑이?: 군부와 국민통합정부 (NUG)

3 군부는 2020년 11월 실시한 총선에서 1천만 건 이상의 광활한 선거부정이 발생했지만, 정부가 이를 자세히 조사하고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론 분열로 인해 군부는 헌법 417조에 의거 6개월간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국가비상사태의 기간은 6개월이고 최대 1년까지 유지해야 하나 군사평의회는 헌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의 기준도 내란, 폭력, 그릇된 폭력 사용 등 매우 추상적이고, 대통령이 국가안보평의회(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를 소집한 뒤 동 사태를 선언해야 한다. 군부는 스스로 작성한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 실제 쿠데타의 배경으로는 민아웅할라잉 군사령관의 개인적 사리사욕과

용맹, 위엄, 잔인함 등을 상징하는 호랑이는 새, 물고기, 코끼리, 물소와 함께 미얀마 속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다. 땃마도(tatmadaw, 정규군)로 대변되는 군부는 현대사에서 항상 강자였으므로 호랑이로 비유될 수 있지만, 퇴역 관료의 눈에 비친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는 과연 군부를 위협할 정도로 용맹한가? 그는 NUG가 시민방위군(PDF: People's Defence Force)을 조직한 사실에 주목했다.

돌이켜보면 PDF가 창설된 2021년 5월부터 미얀마는 한국인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사실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한국만큼 미얀마에 관심을 가지고 미얀마 국민을 응원한 국가는 없었다.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 중무장한 군인과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흡사 우리의 군부 통치 시절을 떠올릴 정도로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sup>3</sup> 그러나 연민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 한국의 경험과 기준에서 볼 때 미얀마 사태의 결과는 군부의 패배와 이에 합당한 처벌일 것이지만, 미얀마의 현실을 관찰해 온 필자의 눈에 비친 미얀마는 애초 예상에서 빛나가지 않았다.

유엔과 같은 외부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비현실적이고 공허한 민초(民草)의 목소리와 함께 소요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군부를 타도하겠다는 단체들이 어김없이 등장했고, 의료진부터 시작한 시민불복종운동(CDM: Civil Disobedience Movement)과 같은 대규모 비폭력 저항도 전국적으로 봉기했다. 해외에 체류하는 미얀마인도 국내보다 더 격렬히 군부를 규탄했다. 그러나 군부독재를 끊어 버리겠다는 불타는 전의에 비해 행동주의는 박약했고, 땃마도의

집단으로서 군부의 기득권 유지가 핵심이다. 쿠데타 발생 4일 전인 1월 28일 군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군의 정치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지만,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획책이었다. 총선이 실시될 당시부터 군부가 지지하는 정당이 패배할 경우 군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아웅산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여당은 어떠한 대비도 하지 않았다.

4 이 관점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장준영(2021, 26-27)을 참조

총칼 앞에 구호와 시위는 무력화되었다. 오히려 군부독재의 암흑기를 몸소 체득한 기성세대와 1기 민주화 운동가인 '88세대'는 침묵했고, 일부 소수종족무장단체가 PDF와 연대한 사실은 의외였으나 이전처럼 소수종족은 쿠데타를 버마족(Burman) 간 패권 갈등으로 간주했다.<sup>4</sup>

계층 간 불협화음은 당연지사지만 세대 간, 종족 간 통합을 이끌 지도력의 부재, 외부 의존적인 국민의 행태와 군부의 결속력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었다. 2021년 3월 27일, 쿠데타 이후 최대 사상자가 발생한 뒤 결국 아세안이 나섰다. 민아웅홀라잉 군사령관은 아세안이 마련한 5대 합의를 귀국하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했다. 아세안은 국제사회에서 큰 망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 분열만 확인했고, 유엔의 의사결정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

쿠데타가 발생한 뒤 꼬박 두 달이 지났으나 반군부 진영의 승리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다양한 국내적 현안과 미얀마 문제를 뺀아들일 정도의 세계 뉴스는 하루가 멀다고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우리는 청춘을 걸고 PDF 요원이 된 젊은이들의 처절한 반군부 투쟁 소식을 기다려 줄 인내심이 부족했고, 그렇게 미얀마는 기억에서 잊혀갔다. 국가 폭력의 잔학성, 아웅산수찌의 구금 등 간혹 단신이 보도될 때 미얀마 소식을 묻는 사람이 있지만, 그마저도 과거의 관심에는 미치지 못했다.

군부의 일방적 승리로 끝날 것만 같았던 민중항쟁은 이번에는 달랐다. 아웅산수찌가 고수한 비폭력 저항 대신 반세기 이상 압도적으로 덩치를 키운 군부를 꺾기 위해 무장투쟁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군 경험이 일천한 젊은이들이지만 자신의 목숨과 군부 없는 후대를 바꾼다는 일념으로 반군부 투쟁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다. 시작은 미약했다. 2021년 5월 5일 창설한 PDF는 약 4주 정도의 짧은 군사훈련 이후 전선에 투입되었는데,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2021년 6월 당시 병력은 약 8천 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 11월에는 약 6만 5천 명으로 늘었다(Banyar Aung 2022.11.24; RFA 2021.7.13). 무기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으나 소총을 비롯한 소형무기 제조 기술을 섭렵했고, 소수종족무장단체의 지원으로 군부와 대등한 교전을 벌였다. 2022년 7월 들어서는 중서부에 위치한 저가잉주(Saging Region) 영토의 1/3을 장악하여 자치를 시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PDF의 약진을 바탕으로 NUG는 군부가 국토의 50%를 장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한 보고서는 그 수치를 17%로 명시하기도 했다(SACM 2022, 13; Ye Myo Hein 2022, 66). 이 분석은 과장되었지만, PDF의 존재는 분명 군부를 당황케 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2022, 292)에 따르면 땃마도의 병력은 약 35만 명이지만, 전투 가능한 병력은 이보다 훨씬 적다는 주장에 귀 기울일 만하다. 미얀마 군사전문가인 셀스(Andrew Selth 2022.2.17)

교수는 전투 병력을 10만-12만 정도로 추산했고, 또 다른 전문가인 예묘헤잉(Ye Myo Hein 2023.5.4)은 전체 15만 명 중 전투 병력은 7만 명에 불과하며 쿠데타 이후 최소 2만 1천 명이 전열에서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주장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탈영한 군과 경찰 수는 약 1만 명이다(Sai Wansai 2022.8.10).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PDF와의 교전과 누적된 피로, 끝이 보이지 않는 무장대결은 땃마도의 사기를 꺾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나아가 군사평의회는 추가의 소수종족무장단체가 PDF와 연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방적 휴전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땃마도는 빠른 속도로 전의를 상실해 간다. 아니 처음부터 땃마도는 강하지 않은 집단이었을 수도 있고, 국민은 그러한 땃마도 앞에 무기력하고 소침했다.

땃마도는 '종이호랑이'로 전략 중이다. 그러나 군 수뇌부의 균열 조짐은 없고 일상 속 국민은 현실을 체념한 것처럼 보이며, 무엇보다 땃마도와 직접 대결하는 NUG와 PDF의 사정을 들여다 보면 전세가 뒤집히지 않는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다. 먼저 PDF는 NUG 국방부 산하 조직이지만, 병력 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지휘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354개의 지역방위군(LDF: Local Defence Force) 중 100개 정도만 PDF와 연대하고 있다(Sai Wansai 2022.8.10). NUG가 주도하여 반군부 전선의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별 이익을 쫓는 LDF의 행태가 아니라 산재한 무장단체를 규합하지 못하는 NUG의 정치적 기술 때문이다.

PDF를 조직하기 전 NUG는 모든 소수종족을 통합한 연방군(federal army)을 창설할 것이며, 이미 80% 이상 협상을 완료했다는 근거 없는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었다. 선의와 정의에 근거할 때 NUG의 포부는 정당하고, 이에 따라 각 무장단체는 연방군에 가담할 것 같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군부와 마찬가지로 민주진영도 지금까지 소수종족이 받은 핍박과 탄압, 차별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NUG는 내각에 소수종족을 포함하고 로힝자족(Rohingya)을 국민으로 인정하는 등 전향적이고 유화적인 조치를 했으나 반세기 이상 응어리진 소수종족의 한은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쉽사리 풀리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21개의 무장단체 가운데 4개만이 PDF와 연대한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NUG의 기대치 않은 성과일 수도 있다.

NUG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등에 업고 출범했다. 출범한 지 1년도 안 돼 NUG는 27억 2천만 쪼(약 190만 달러)를 인도주의 기금으로 확보했고, "봄의 복권"(spring lottery)을 발행하거나 정부 자산을 매각할 때마다 국내외 국민의 열렬한 참여가 있었다. NUG가 국민을 대신하여 군부를 퇴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그러나 NUG는 아웅산수찌 정부처럼 경험과 인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정치력과 행정력 등 전반에 걸쳐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경중도 파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NUG는 연방 구성원의 화해와 통합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연방 민주주의(federal democracy)라는 화두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아웅산수찌 정권 임기 내 실시한 네 차례의 평화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소수종족은 여전히 자종족의 이익 추구에만 천착한다. 그러므로 NUG는 군부와 대결에서 승리한 다음 수순으로 각 구성원의 형평성을 조율하고 평등과 공존에 기반한 연방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연방 민주주의는 내전과 군부 통치의 종식 이후 찾아올 미얀마 행정체제의 최종 종착지이다.

그렇다면 현재 NUG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NUG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기대치가 떨어지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NUG는 거리에서 쓰러져 간 이름 없는 국민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애도한 적이 없고, 대신 아웅산수찌 국가고문과 원민 대통령 등 정치지도자의 안위에만 관심을 둔다. 2021년 9월 군부를 퇴진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시민방위전을 선언할 때도 NUG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만 독려할 뿐 그들의 역할은 함구했다. 뜻마도는 공군까지 동원하여 저가잉주 자치지역을 공습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빼앗기면 PDF의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엄중한 현실 앞에 군부독재는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고문’만 안길 것이 아니라 자기희생, 위민정신과 애민정신, 현실에 부합하는 전략과 정책이 NUG에게 필요한 때이다. NUG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면서도 쿠데타 조짐 앞에 무기력했던 아웅산수찌 정부를 답습해서는 안 되며, 권력은 군림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복기했으면 한다.

## 맺으며: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은 주변에서부터

쿠데타 이후 미얀마는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의 비호를 바라면서도 러시아에 밀착하는 행보를 보인다. 심지어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아세안 지도자와 달리 민아웅할라잉 군사령관은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했다. 국제적 고립과 양극화되는 세계질서 속에 미얀마 군부는 철저히 그들을 비호해 줄 국가의 편에 서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미얀마산 120ER(120mm) 박격포탄을 사용한 정황도 알려졌다(Militarnyi 2023.7.26). 군부 입장에서서는 지렛대를 놓아 외부의 압력을 견뎌내려고 하지만, 중국마저도 자국의 이익에 근거하여 미얀마와 관계를 재조정하는 냉엄한 현실이 작동한다. 근시안적인 미얀마 군부의 행태는 외교기조의 심각한 왜곡을 유발하고 지금까지 쌓아 온 대외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앞으로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쿠데타 이후 한국과 미얀마의 공식적인 관계는 잠정 중단되었으나 미얀마의 한국 사

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 쿠데타 당시 한 무리의 학생이 한국대사관 앞에서 한국어로 미얀마를 구해 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크게 보도된 적이 있다. 미얀마에게 한국은 꼭 배워서 따라가야 할 모범국가이다. 한국 정부도 새마을운동, 미얀마 개발연구원, 미얀마 무역 투자 진흥기구 등 한국의 산업화를 견인한 정부 기구 신설과 농촌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관계를 강화했다. 그런데 쿠데타 이후 상황은 확 달라졌다. 두 개박에 되지 않는 미얀마 대학 내 한국어과 중 하나는 임시 폐과했고, 실력 있는 교수진도 강단을 떠났다. 하루에 4-5시간씩 방영되던 한국 드라마도 텔레비전에서 자취를 감췄다. 군 장성의 '사모님'도 즐겨보는 한국 드라마 방영을 중단한 미얀마 정부의 강수는 대사를 공식으로 둔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한다. 한국 아이돌의 미얀마 공연이 열리지 않은 지도 꽤 되었다.

한국은 자유와 인권, 그리고 번영을 국지적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으로 확산하겠다는 포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GPS: Global Pivotal State)의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가치와 규범의 연대, 그리고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유연함을 통해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 쏠리지 않는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정치문제로 인해 일부 위정자가 한국과의 우호를 끊어 내려고 시도하는 미얀마를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이번 방문에서 만난 한 교민은 쿠데타와 문화재 발굴 및 복원 사업, 농촌 개발 사업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되물었다.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은 재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국익 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외교에서 한국에게 미얀마의 중요도는 상대적이다. 그러나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국민은 하나 되어 미얀마의 민주화를 열렬히 응원했다. 그리고 더 몇 해 전 미얀마가 개혁개방을 추진할 때는 '블루오션', '마지막 남은 미개척시장'이라 별칭하며 앞다투어 진출을 타진했다. 다시 말해 미얀마는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이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친구의 사정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제 중단되다시피 한 양국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지 않더라도 복원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이다. 한국만의 외교적 지평과 위상을 확고히 할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서 그러하고, 오매불망 한국을 닦기 위한 미얀마의 미래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더욱 그러하다. 분명 미얀마는 잊히지 말아야 한다.



## 참고문헌

- 장준영. 2021. "미얀마 임시정부가 지금 해야 하는 일." 『시사인』 710호, pp.26-27.
- Banyar Aung. "An Assessment of Myanmar's Parallel Civilian Govt After Almost 2 Years of Revolution. The Irrawaddy. 2022.11.24.
- <https://www.irrawaddy.com/opinion/analysis/an-assessment-of-myanmars-parallel-civilian-govt-after-almost-2-years-of-revolution.html>
- IISS(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22. Military Balance. IISS.
- KaiBaanThai, "19-23 June 2023: Weekly Thailand Property News." 2023.6.23.
- <https://www.kaibaan thai.com/en/advice/19-23-june-2023-weekly-thailand-property-news>
- Khine Win. "The Economics behind Min Aung Hlaing's Grand Delusions." Frontier. 2021.9.30.
- <https://www.frontiermyanmar.net/en/the-economics-behind-min-aung-hlaings-grand-delusions/>
- Leah. "Top 5 Foreign Nationalities Buying Condos in Thailand in 2022." Thaiger. 2022.12.28.
- <https://thethaiger.com/thai-life/property/property-news/top-5-foreign-nationalities-buying-condos-in-thailand-in-2022>
- Militaryni. "Russia Received Ammunition Manufactured by Myanmar." 2023.7.26.
- <https://mil.in.ua/en/news/russia-received-ammunition-manufactured-by-myanmar/>
- Myanmar Now. "Minaunghlaing-hpaya-koungyazayeik-dawla-than-leizehkanshi- chaukla-thetdan-kounchein-hpayabwegyi-lout-yan-sizinne"[4천만 달러를 투입한 민아웅홀라잉의 불탑이 건축 6개월 만에 완공되어 큰 축제를 개최할 계획임]. 2023.7.31.
- <https://www.facebook.com/myanmarnownews>
- Phoonphongphiphat, Apornrath. "Myanmar Citizens Eye Escape to Thailand to Avoid Conflict at Home." Nikkei Asia 2023.2.21.
- <https://asia.nikkei.com/Spotlight/Myanmar-Crisis/Myanmar-citizens-eye-escape-to-Thailand-to-avoid-conflict-at-home>
- RFA(Radio Free Asia). "Zulainla-kounham-sitthindanshin-PDF-shithtaunkyaw-shi melo-NUG-kagewye-wungyi-pyo." [6월 말까지 군사훈련을 받은 시민방위군은 8천 명이 넘었다고 NUG 국방부 장관이 언급] 2021.7.13.
- <https://www.rfa.org/burmese/interview/pdf-nug-coup-military-07132021165750.html>
- SACM(Special Advisory Council for Myanmar). Effective Control in Myanmar. 2022.9.5.
- <https://specialadvisorycouncil.org/2022/09/statement-briefing-effective-control-myanmar>
- Sai Wansai. "Myanmar's National Unity Government Seeks to Arm Its Fighters." Mizzima. 2022.8.10.
- <https://mizzima.com/article/myanmars-national-unity-government-seeks-arm-its-fighters>
- Selth, Andrew. "Myanmar's Military Numbers." The Interpreter. 2022.2.17.
-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myanmar-s-military-numbers>
- The Irrawaddy. "Junta Watch: Regime Boss Ties 'Patriotism' to Fuel Bills as Wife Pens Ode to Air Force." 2022.12.17.
- <https://www.irrawaddy.com/specials/junta-watch/junta-watch-regime-boss-ties-patriotism-to-fuel-bills-as-wife-pens-ode-to-air-force.html>
- Ye Myo Hein. 2022. One Year On: The Momentum of Myanmar's Armed Rebellion. Wilson Center and Tagaung Institute.
- Ye Myo Hein. "Myanmar's Military is Smaller than commonly Thought and Shrinking Fast." USIP(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2023.5.4
-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3/05/myanmars-military-smaller-commonly-thought-and-shrinking-fast>

# 잊히지 말아야 할 그 이름, 미얀마: 두 마리 '호랑이', 그리고 한국

발행일 2023년 7월 28일

발행처  민주회 운동기강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ikd@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9 772508 324001  
ISSN 2508-3244